화폭에 피어난 천년의 발원을 친견하다

박영빈 객원기자의
일본 규슈 박물관 고려·조선불화 특별전 관람기


조선전기 건축과 단청에 중요한 자료로 꼽히는 '석가탄생도'


고려불화의 백미로 불리는 '카가미신사 수월관음도' 세부 모습.


인성왕후가 발원한 '관세음보살삼십이응상도'


특별전을 보고 있는 관람객들.

후쿠오카=박영빈 객원기자

"내가 수월관음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보살님께서 저를 보러 오신거죠."

전시실에 걸린 카가미 신사 소장 '수월관음도' 앞에 홀로 앉아 한참 불화를 바라보던 한 관람객은 감동에 붉어진 눈시울로 감상을 이야기했다.

규슈국립박물관(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에서 개최된 특별전 〈숭고한 믿음의 아름다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이 일본현지와 한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9월 5일부터 열린 전시회는 일본 내에 산재한 고려와 조선전기의 여러 불교미술품을 한데 모아 공개하는 특별전. 특히 이번 전시회엔 고려불화의 백미로 꼽히는 카가미 신사(鏡神社) 소장 수월관음도를 필두로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불화들도 함께 공개된다는 사실이 큰 주목을 끌었다.

한국과 일본의 불교미술 연구자들은 물론 전통 회화 및 공예 작가, 애호가들은 전시의 개최 예정이 공지되자 작게나마 소동이 일었다. 이번에 가지 못하면 다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고려불화 최고 작품인 카가미 신사의 수월관음도가 등장하고, 조선전기 불화로는 수많은 역사적, 예술적 정보를 담고있는 '석가탄생도', 고려 천추태후의 발원으로 조성된 '감지금자대보적경 사경' 등이 한자리에 모인단 사실만으로도 꿈과 같은 전시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같은 시기에 후쿠오카시미술관(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서 조선전기 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전 〈조선왕조의 회화: 산수·인물·화조〉가 열려 이 두 전시를 한번에 보기 위한 발걸음들이 이어졌다. 실제 전시장에서 만난 한국인 관람객 대부분이 이 두 전시를 위해 일부러 규슈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 대해 규슈국립박물관 측은 "불교를 숭상한 고려와 억압을 가한 조선은 서로 불교에 대해 다른 방향성을 가졌으나, 천년이 넘는 두 시대에서 많은 불교미술이 탄생했다. 이 가운데 특히 뛰어난 시기라 불리는 11~16세기 사이의 작품을 모아 전시했다"고 밝히며 이번 특별전의 의의를 전했다. 이번 전시에는 고려불화와 조선불화, 불상, 사경, 나전공예품까지 48점이 출품됐다.

전시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박물관에서 공개한 전시품 목록을 보았을 때 카가미 신사 수월관음도가 공개된다는 것도 놀랐지만, 석가탄생도가 한자리에서 공개된다는 점에 더욱 설렐 수밖에 없었다. 가장 보고 싶었던 불화 두 점을 한자리에서 보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9월 25일을 기준으로 전기전시와 후기전시로 나누어 전시작의 일부교체가 진행되기에 두 전시를 모두 보겠다는 마음으로 일정을 잡고, 박물관 측에 취재요청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규슈국립박물관 한국어 홈페이지에선 문의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일본어 홈페이지를 여기저기 더듬어 메일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런 큰 전시가 있는데도 교계신문 어느 곳도 특별 기사를 내지 않고 있단 점에서, 이 전시에 대한 모습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카메라도 빌렸다. 평소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현장의 감동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진업을 하는 지인에게 고려불화를 보러 일본에 간다는 이야길했더니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메인 카메라를 선뜻 내주었다. 지인은 "나중에 다 보정해 줄 테니 일단 어둡든 밝든 찍어만 오라"며 귀한 모습들을 잘 남겨오라 격려해줬다.

취재도 취재지만 불교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문정왕후 발원의 〈약사삼존도〉와 전 세계에 10점 남짓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국화당초나전경함〉이 전시되는 전기전시에 중점을 둬 취재 요청도 전기전시의 마지막 날인 24일로 했다. 24일보단 며칠 앞서 일본에 가서 조선회화전 등을 보고 하루를 통째로 취재에 쓸 요량이었지만 출국하는 당일까지도 취재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다 취재는 못하고 전시만 보고 오는 게 아닌가, 주변에 괜히 호언장담했나 하고 곤란하던 찰나 22일 저녁에 취재허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특별전에 전시된 몇몇 전시품에 대한 촬영과 지면게재는 불가라고 안내 받은 목록에 하필 약사삼존도와 경함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특별전에 일본현지·한국 큰 주목
불상, 사경, 나전공예품 등 48점
'수월관음도' 살피는 관람자 가득
"고려·조선불교 단절 아닌 지속"

후쿠오카의 중심지인 하카타역에서 버스로 1시간 남짓. 규슈국립박물관이 있는 다자이후(太宰府)에 도착했다. 지금은 후쿠오카시가 대도시로 번성하지만 사실 고대 규슈의 중심지는 이곳 다자이후였다. 일본 조정은 이곳에 행정처를 설치하고 한반도나 중국과의 외교나 무역을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중세에 이르러서는 쇠퇴하게 됐고, 근대에는 항구가 있던 후쿠오카시가 더 번성하면서 지금은 소도시로 전락했지만 그 역사만큼은 어디에도 지지 않는 도시다.

역에서 10분 남짓 걸어 박물관에 도착, 취재 완장을 수령하고 전시실로 안내 받았다. 두 전시관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특별전은 어딜 둘러보아도 빼놓을 수 없는 명품들이었다. 넘치는 아름다움에 대체 뭘 찍는지도 모르게 셔터를 눌러댔다. 하지만 단연코 압권은 고려불화 최고의 걸작으로 불리는 카가미 신사(鏡神社)소장 수월관음도. 가로 254.2cm, 세로 419.5cm의 대형불화로 지난 2020년 사가현립박물관에서 마지막으로 공개된 이래 대중공개는 오래간만이다. 국내에선 2009년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마지막 공개였다. 규슈국립박물관은 지난 2005년 박물관을 새로 지으면서 이 불화를 전시하기 위한 진열장을 따로 설치했다.

커다란 수월관음도 앞은 단망경을 들고 구석구석 그림을 살피는 관람자들이 가득했다. 그중 몇 분께 부탁해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우연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회화전공의 이수영 겸임교수가 있었다. 이수영 교수는 "당연히 이 수월관음도를 실견하기 위해 한국에서 찾아왔다. 모든 한국 불화 전공자들의 로망과 같은 불화다. 실제로 보지 않으면 범접할 수 없는 기운과 세계가 느껴진다"며 감동을 전했다. 또한 다른 불화들을 가리키며 "30여 년 전 처음 고려불화를 실견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세월에 따른 열화가 진행된 것이 보여 마음 아프다. 워낙 오래된 불화들이라 지금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고려불화는 볼 수 있을 때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오직 카가미 신사 수월관음도를 위해 서울에서 왔다는 조안나 씨는 "사실 불자가 아니지만 몇몇 불교 미술품에 감동을 받았고, 그러다 고려불화를 알게 됐다. 오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처음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선재동자를 내려다보는 보살님의 시선이 꼭 나도 내려봐주시며 위로해주시는 느낌이었다. 마치 인생의 가르침을 불화를 통해 받는 느낌"이라며 감동을 전했다. 과연 그 말을 듣고 바라보는 수월관음도의 눈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이와 자비가 느껴졌다.


규슈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특별전 〈숭고한 믿음의 아름다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이 일본현지와 한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조선전기 불교회화의 명작으로 꼽히는 〈석가탄생도〉 역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석보상절〉의 내용을 불화로 옮긴 이 작품은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을 꼭 조선시대의 왕처럼 묘사하고, 궁궐의 묘사나 단청 등이 조선전기 건축의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전통건축학과를 졸업했다는 김도경 씨는 "분명히 실존한 건물들을 보고 그렸음이 분명하다. 15세기 조선전기 다포식 건물을 그대로 옮겨두었다. 특히 이 석가탄생도에 그려진 문루는 조선전기 광화문의 형태를 추정하는 사료로 꼽힌다. 작품을 실견할 수 있어 엄청난 감동"이라며 단망경을 들고 한참을 그림 속 건물들을 살폈다.

박물관 측은 "예상외의 엄청난 호응이다. 전시도록만 해도 전기전시에서 완판돼 긴급인쇄에 들어갔다. 고려와 조선의 불교문화는 단절이 아닌 지속이었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 내소사 함께하는 문화여행
산사음악회
2023년 11월 4일(토) 오후2시 / 부안 능가산 내소사
프로그램 · 산사음악회:오후2시 · 불교문화체험:오전11시-오후5시 · 부안군민공예체험:오전11시-오후5시
내소사홍보 · 내소사템플스테이:오전11시-오후5시
불교문화체험프로그램 · 전통차 체험 · 소원컵 연등 만들기 · 페이스 페인팅 체험
문의 063.583.7281
함께하는 아티스트
서정성 짙은 한국 최고의 포크가수 정태춘, 박은옥
4인조 록 밴드 로맨틱펀치
MBN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옥과 국악단
현악4중주 앙상블 'Arte'

대원만 정도 광명 大圓滿正道光明 전4권
강설 : 츠총로주 캔포
편역 : 지엄 스님
『대원만 정도 광명大圓滿正道光明』은
초학자에게는 불교의 보고를 쉽게 이해하게 하는 길잡이이고,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는 비결을 얻는 보전寶典이고 열쇠이며,
뜻이 있어 깊이 불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불교 경론을 공부하는 지침이 된다.